

석유

日本석유사들 저유소 통합운영, 가격경쟁에 대비 물류비 절감 위해

일본 석유업계는 지난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휘발유 수입자유화에 따른 가격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저유소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등 물류비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昭和石油, 코스모石油, 저팬에너지(J에너지), 모빌石油, 제너럴石油 등 5개 석유원매회사들은 高知縣에 있는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물류거점인 저유소를 내년 하반기에 통합키로 합의하고 일부시설을 폐쇄, 설비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을 일본화물철도(JR貨物)그룹에 위탁하여 휘발유 수입자유화에 따른 가격경쟁격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일본의 석유원매회사들이 저유소를 공동화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각지에서 대형통합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저유소는 정유공장에서 연안유조선으로 운반된 석유제품을 저장했다가 주유소등에 출하하는 시설. 계획에 따르면, 高知市 土佐만에 있는 5사의 저유소중 昭和石油, 제너럴이 폐쇄되고 J에너지는 규모를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코스모石油와 모빌石油는 출하시설등을 확

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유소의 저유능력은 목표 탱크용량(5사 합계 4만kl)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된다. 나머지 3개 저유소는 배관으로 연결하여 일체화하고 JR화물그룹의 석유제품 내륙물류회사인 日本오일 터미널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ARCO, 루크오일과 제휴 舊소련에 30억달러 투자

미국의 ARCO社는 러시아석유회사인 루크오일과 함께 舊소련권에서 석유천연가스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30억달러가 투입되는데, 자금과 기술력이 뛰어난 메이저와 대량의 매장자원을 가진 신흥러시아의 러시아기업의 대형제휴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의 기본합의에 따르면 ARCO와 루크오일은 지분을 46대 54의 비율로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舊소련제국에서 석유개발에 나선다. 자금은 주로 ARCO가, 인력조달등 실제 작업은 오일루크가 담당할 예정이다.

ARCO는 주력거점인 알라스카 유전의 생산이 머지않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외유전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오일루크는 자산규모면에서는 「7자매」(국제석유자본)의 새형제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증산과 신규개발을 위해 해외기업투자가 요청되는 상황

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등 한냉지에 유전이 많아 기후조건이 유사한 알라스카에서 실적이 있는 ARCO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Petronas사, 베트남에서 소량의 석유 및 가스 발견

말레이시아의 Petronas사는 베트남 해양광구에 대한 탐사공 시추를 통해 소량의 석유 및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견은 이 회사가 '94년과 '95년에 각각 기록한 Ruby 및 Emerald 발견정 이후 3번째 발견정이다.

이 회사는 Topaz-1 탐사공 시추에서 산출시험을 통해 석유 325b/d와 가스 950萬ft³/d를 생산한 후 현재 상업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Petronas사는 '91년 이후, 베트남 해상광구에 참여하여 01 및 02 해양광구에 대한 운영권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탄성과 탐사 24,000L-km, 7개 탐사공, 3개 평가정시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96. 3. 7)

일본 석유제품 수입 96년엔 0.1% 증가에 그칠듯

일본정부는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외로부터의 제품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이 최근 발표한 향후 5년간 석유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석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아시아지역의 수급꺾박 때문에 올해 수입량은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서서히 늘어나 2000년에는 전년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료유 수요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억4천1백82만kl로 전망되고 있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등유가 감소하고 원자력발전의 신규가동으로 전력용B-C유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국내수요증가가 완만하기 때문에 제품수입이 증가하는 대신 원유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태국공동개발구역에서 가스 발견

Petronas사와 Triton사는 공동으로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말레이시아-태국 공동개발구역(JDA)에서 가스발견에 성공. Cakerawala-East-1 탐사공에선 산출시험을 통해 가스 2,200萬ft³/d와 석유 131b/d가 생산('96. 3. 8)

Shell사, 나이지리아 해양에서 대규모 원유 발견

Royal Dutch/Shell사가 나이지

리아 해양 Bongo 1 지역에서 대규모 원유발견의 개가를 올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보도했다.

이에 대한 Shell사의 입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편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발견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Shell사는 현재 이 지역에서 저류층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중이며 앞으로 몇개월 경과후에 발견 규모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hell사 관계자는 이번 발견지역은 심해지역으로서 이제까지 생산이 이루어지던 대륙붕과는 여러모로 다른 조업환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hell사의 육상지역에서의 원유 생산은 작년 11월 나이지리아 군부에 의해 처형된 켄 사로위와가 이끌던 오고니족의 환경 수호권 투쟁을 불러 일으키는 등 지역 공동체와의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Shell사로 하여금 해양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이지리아 해양에서의 미래는 Shell사 차원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석유산업 전체의 명운에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96. 3. 13)

멕시코만 심해 광구에서 석유 발견

Texaco사는 멕시코만 심해 Petronius 광구에 대한 평가시추를

통해 8千萬~1億배럴 상당의 석유를 발견. 同광구에는 Texaco사와 Marathon Oil사가 각각 50%의 작업지분을 소유. 생산은 '98년말이나 '99년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96. 3. 15)

브라질, Campos 분지의 거대 유전개발 가속

브라질의 국영 석유사인 Petrobras사는 심해 Marlim 해양유전에 3개생산플랫폼을 추가로 건설하여 산유량을 현재의 85,000b/d에서 53萬b/d로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Marlim유전은 브라질 Campos 분지 3대 개발예정 유전의 하나이다. Albacora 유전에선 현재 6萬b/d가 생산중에 있는데, 최고 생산량은 20만b/d로 예상되고 있다. Barracuda 유전에선 올 연말에 생산개시 예정이다.

이 3대 유전은 2000년에 가서 브라질의 예상 생산량인 148萬b/d의 절반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96. 3. 18)

노르웨이정부 광구 분양 예정

노르웨이 정부는 3월말경 바렌트 해 광구분양 실시를 발표할 예정. 입찰 마감일은 그때 발표될 것이며, 낙찰자 발표는 '96년말로 예상되고 있음.('96. 3. 19)

노르웨이 Yme유전 생산량증가 예상

Statoil사가 지난 2월 27일 생산을 시작한 노르웨이 Yme유전의 생산량이 14,000b/d에 달했으며, 8월 경에 50,000b/d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유전의 매장량은 6,500萬배럴임.(’96. 3. 20)

프랑스 TOTAL사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발견

프랑스의 Total사는 베네수엘라 북동쪽에 있는 Jusepin 광구에서 석유발견에 성공. 두 차례의 산출시험을 통해 총 14,200b/d의 원유가 시험 생산되었음. 이 광구는 Total사가 운영권자이며, Amoco사가 합작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96. 3. 20)

중국, 2000년경 석유 공급부족 규모 2,800萬톤 예상

오는 2000년경 중국의 총 석유수요는 1億8,000萬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산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약 2,800萬톤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중국 국영석유사 CNPC가 발표했다.

중국의 잠재 매장량 규모를 감안할 경우 향후 매장량 개발여지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따라 석유탐사 촉진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금 및 기술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20億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CNPC는 밝혔다.(’96. 3. 25)

인도 ONGC사 새로운 유전 발견

인도의 ONGC사는 Bombay High 유전 남쪽으로 60km 지점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견한 후 현재 산출시험을 실시 중이라고 발표. Business Standard지는 이번에 발견된 유전이 Bombay High 유전을 능가하는 대규모 유전이라고 보도했으나, ONGC 대변인은 이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면서 산출시험이 끝나야 유전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발표.(’96. 3. 26)

러시아 연료·에너지부 차관, 경제난 극복 위해 원유생산 증대 촉구

러시아는 자국의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원유생산을 연간 3億2,000萬~3億4,000萬톤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연료·에너지부의 Vadim Dourechinskiy 차관이 언급했다.

Dourechinskiy 차관은 영국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주관한 러시아 석유산업의 교역 및 투자기회 회의의 연설에서 '96~'97년 러시아의 원유생

산은 연간 3億~3億500萬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생산수준도 자국의 현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현 원유생산 수준은 연간 약 3億톤 수준이다.(’96. 3. 29)

올해 중국 해양 천연가스 생산량, 대폭 증가될 듯

중국의 금년 해양 천연가스 생산량은 30億m³로 전년비 6배 증가가 예상된다고 China Daily지가 발표했다. 원유 생산량을 포함하면 총 해양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은 석유 환산 기준으로 1,700萬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NOOC사는 현재 중국 해양유전중 19개 유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19개 유전 모두 상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중 일부 유전은 동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는 외국 석유회사들과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다.(’96. 3. 29)

미국·캐나다, 석유회사들에 대해 세부담 경감

미국 및 캐나다 정부가 석유·가스 탐사개발 활동을 부양하기 위해 석유회사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투자확대를 위해 자본 비용의 공제 혜택을 Oil-sand 개발 산업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ilsand 개발의 선두 주자인 Syncrude사는 캐나다의 전체 산업중 Oilsand 개발산업은 일반적인 재정조건에 귀속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법규정 변경을 환영했다.

새로운 법규정은 캐나다의 Oilsand 개발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한 특별위원회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향후 25년간 210億~250億 캐나다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미국 육상 자원개발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Bureau of Land Management(BLM)은 최근 중질 원유의 생산에 대한 연방 로얄티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한계가스정들에 대한 로얄티 공제를 검토하고 있다.(’96. 4. 1)

BP사 콜롬비아에서 석유 및 가스 발견

BP사는 콜롬비아 Llanos Thrust Front에 있는 Santiago de las Atalayas 광구의 Cupiagua-5 평가정 시추를 통해 석유 및 가스발견에 성공. 탄화수소함유층의 두께는 5,508ft로 남미 지역에서 가장 두꺼운 저류층으로 기록되고 있음. 산출시험량은 API 39도의 원유 8,640b/d와 천연가스 3,300萬ft³/d를 기록, 생산 가능량은 석유 22,000b/d, 가스 7千萬ft³/d로 추정

되고 있음.(’96. 4. 1)

BP사, 북해 유전 매각 계획

BP사는 영국령 북해의 4개 유전 및 위성 유전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유전은 Beatrice, Buchan, Clyde, 그리고 Thistle 유전과 그위성 유전들로 이들 유전의 총 생산량은 59,000b/d이며, 이들에 대한 BP사의 지분은 약 50%이다.

BP사가 이 유전들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이 유전들이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BP사의 다른 유전들에 비해 수익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BP사는 금년 가을 이전까지 이 유전들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96. 4. 2)

노르웨이 의회 유전개발계획 승인

노르웨이 의회는 Norsk Hydro사가 제출한 Visund 유전의 개발계획을 승인했음. Visund 유전은 북해의 Statfjord 유전과 Snorre 유전의 동쪽에 위치하며, ’98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예상 생산량은 100,000b/d임.(’96. 4. 3)

앙골라 정부 해양 생산광구 분양

앙골라 정부는 최근 3개의 해양

생산광구를 분양했는데, 이중 Zone 7광구는 남아프리카 Engin사에게, Zone 18 광구는 美 Amoco사에게, Zone 20은 Mobil사 및 Texaco사에게 각각 분양됨. 3개 광구의 현 원유 생산량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앙골라 의회의 공식승인을 득한 후에 본격적인 생산 개시가 예상됨.(’96. 4. 3)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용료와 물품세 인상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사용료와 물품세(Excise Tax)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소식통이 4월 3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석유수출세의 인하 및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사용료와 물품세를 각각 73%, 40%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세의 폐지는 IMF가 러시아에 102億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내세운 조건으로, 러시아는 석유수출세를 4월 1일부터 50% 인하고 7월 1일부터는 폐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석유회사들은 석유수출세의 감소부분을 물품세와 파이프라인 사용료로 지불하면서 환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석유수출세는 ECU 화폐로 지불된 반면 물품세는 인플레이션율이 큰 루블화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석유수출세를 면제받던 합작회사들은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영석유사 신규천연가스층 발견

말레이시아 국영석유사인 *Petronas*사는 태국만 남쪽 해양에서 신규 천연가스 저류층을 발견했다고 발표. 발견위치는 말레이 반도의 *Kuala Trengganu*시에서 동쪽으로 17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과의 해양 경계선 근처임. 이번에 시추된 *Bergading* 탐사공에선 가스 1億3,100萬ft³/d와 컨덴세이트3,680b/d가 생산되었음.(’96. 4. 4)

환경

아시아, 2000년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지역 예상돼

아시아가 오는 2000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지역이 될 것이라고 최근 한 사설 연구기관이 발표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지역은 북아메리카.

1995~2015년 기간 중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평균 3.5%로서 전세계 증가율 2.2%보다 높은 3.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DRI·맥그로힐* 지구에너지그룹은 밝혔다.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는 석유 환산량으로 2015년 48억 9,000만톤에 달한다는 것. 이 양은 1995년의 수요량 24억 8,000만톤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며, 북아메리카보다도 50%나 높은 수준이다.

1995~2015년 일본의 에너지 수요는 아시아 지역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달리 매년 1.3%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완만한 까닭은 일본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19%에서 2015년에는 1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연구기관은 밝혔다. 1995~2015년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7%.

중국은 2010년에 이르러 서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美유류오염법 위반 선박사 벌금 기소

미국 텍사스주 해양용역사 *겔브스톤사*는 최근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990년 이 법이 제정된 후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유류오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의 지방관

사는 지난 해 2월 고의로 상당량의 기름을 배출한 *혼백사*에게 25만불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캘브스톤사*에게는 연안보전협회에게 10만불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판결했다.

유류오염법은 1989년 *엑스 발디즈호* 기름 유출사고 후 제정되었으며, 고의로 많은 양의 기름을 배출하였을 경우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의 형사처벌 조항을 확대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시아지역 LNG 수요 계획- 실제보다 『과장』

아시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량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 부정확한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동서연구센터(*East-West Center*)의 한 연구원이 밝혔다.

의욕에 넘쳐있는 아시아 각국 정부가 예상한 에너지 수급계획은 대부분 비현실적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계획기간 동안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히며, LNG와 원자력 발전의 수요를 과대 평가한 반면, 석탄과 석유 수요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는 각국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산가스 배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호감가는 전망을 내놓기 때문이라는 것.

포드사, 천연가스 자동차 시장 선점 노려

천연가스차(NGV)가 휘발유 차에 비해 대기오염 배출이 적고 연료비가 저렴한 반면, 성능이 뛰어나다면 많은 사람들이 천연가스 자동차를 선호하지 않을까. 포드사는 천연가스차의 시장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내 주요 도시 가운데 천연가스차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시를 가려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지역의 유류공급자와도 제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포드가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

뉴욕,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LA, 덴버, 솔트레이크시티, 샌디에고,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시 등이 포드사가 꼽은 10개 도시이다.

포드사는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DM 발송, 시험승차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으는 「키 시티(Key Citi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드사가 내놓은 천연가스 자동차는 이코노라인(벤), F 시리즈(픽업트럭), 크라운 빅토리아(세단)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멕시코 페멕스사, 정유부문 환경감사 실시

멕시코의 독점 석유사인 페멕스(Pemex)사는 올해 신규 정유공장을 건설하기보다 기존의 정유공장을 정비해나간다는 초점을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멕스사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페멕스사의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정유공장 설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페멕스 정유사는 이미 93~95년 사이 6개 정유공장과 수 많은 저유설비, 해양시설에 대해 환경감사를 끝냈다. 올해에는 16개의 저장·보급시설, 12개의 해양시설 그리고 6개 관로시스템등 정유부문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휘발유 첨가제, 건강피해 명백한 증거 없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휘발유에 첨가해온 첨가제가 질병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수행된 이 연구 결과, 첨가제가 보통의 휘발유에 비해 단기적 건강 위해도(short-term health risks)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

첨가제가 동물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첨가제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수십건의 사례 연구를 검토한 연구진은 첨가제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서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미국의 많은 주(州)들은 그 동안 미환경보호청이 일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압력에 따라 4년 전부터 MTBE(methyl tert-butyl ether) 및 에탄올과 같은 화학물질을 휘발유에 첨가하도록 권유해왔다.

MTBE가 사용되기 시작한 1992년, 일부 운전자들이 두통과 구토 등을 호소한 바있다. 첨가제가 운행 거리를 감축시키고 엔진의 성능을 손상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 책임자는 일관성 없는 과거의 사례 연구만으로 MTBE와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산화제로 알려진 휘발유 첨가제는 일산화탄소 및 기타 유해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10~25% 정도 오염배출량이 줄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첨가제의 사용을 즉각 줄이도록 할 만큼 첨가제가 건강 피해를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日 이데미츠사, 호주 대륙붕 채굴권 얻어

일본의 주요 석유가스사의 하나인 이데미츠 코산사는 호주 정부로부터 호주 연안의 원유 및 천연가

스 채굴권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데미츠사는 웨스턴광업사와 공동으로 호주 정부가 권유한 이 권리를 얻게 된 것.

양사는 빠르면 올해 봄부터 지진 파를 이용한 탐사에 들어가 내년 가을 쯤 2개 지역에 3개의 시추공을 뚫을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매년 4억엔에서 8억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채굴권을 얻은 지역은 호주 서부 뎀피어의 북서부와 남서부에 위치한 대륙봉W95-5와 W95-6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00년경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데미츠사는 밝혔다.

美 폐식용유 이용 자동차 연료 「바이오 디젤」 생산

미국 전역에 식용유를 공급하고 있는 칼럼버스푸드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를 이용해 버스 연료인 바이오디젤(biodiesel) 제조 생산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미에너지성(DOE)의 「지속가능한 에너지협력 프로그램(STEP)」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지원을 위해, 미에너지성은 일리노이주에 20만불의 증여금을 주기로 했다. STEP의 주목적은 미에너지성 산하 국립재생가능에너지시험소의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

미에너지성과 국립바이오디젤청, 그리고 지방·단백질 연구재단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대체연료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하나이다. 현재 시카고시에서는 매년 5천만 갤론의 폐식용유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따라 50만 갤론의 폐식용유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뀌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게 된다.

美정유사, 환경청과 지하수 정화사업 펼쳐

미환경보호청(US EPA)은 최근 주정부, 미국시험재료학회(ASTM) 뿐만 아니라, 아모코사(Amoco Oil Corp), 페트로리움오일사(British Petroleum Oil Co.), 체브론 유에스 에이(Chevron USA), 모빌사(Mobil Oil Corp.)와 셸사(Shell Oil Co.) 등 정유사들과 함께 지하 저장탱크의 기름 누출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를 공중보건 피해와 환경 피해를 줄여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이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내에서 지하수 오염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하 기름탱크의 누출이다. 1995년 말에 미환경청과 주정부는 30만 3,000개소 이상의 지하 기름탱크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13만 1,000개소 이상의 지점에 대해서 정화 사업을 끝냈지만, 매주 600개소 이상의 새로운 누출 지점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환경청과 각 정유사들은 관심있는 주(州)들이 새로운 지하수 오염 정화 방법에 관한 3단계의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10만불씩 기부했다.

美 총무처, 기름제거제 등 28종 환경상품 추천

미환경보호청과 연방 총무처는 정부가 환경친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8종의 생분해성 상업용 세제와 기름제거제(degreaser)에 관한 상품 정보를 발표했다. 이 안내 목록에는 정부기관이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미국 최대의 세제 구매자의 하나는 바로 연방 정부이다. 미연방 정부는 1993년 이래 880만 달러에 달하는 생분해 세제 및 기름제거제를 구입한 바 있다.

미환경청과 총무처는 이번 안내 목록이 환경친화적 상품의 구입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